

대상 소타자로 작용하는 엘런 올렌스카 - 『순수의 시대』에 나타난 남녀관계

이 미 선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욕망 이론을 토대로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의 『순수의 시대(The Age of Innocence)』의 두 주인공인 뉴랜드 아처(Newland Archer)와 엘런 올렌스카(Countess Ellen Olenska)의 관계에서 엘런을 대상 소타자(*objet petit a*)로 규정하고 두 사람의 사랑의 불가능성을 욕망의 불가능성으로 읽어내는 것이다. 뉴랜드는 1870년대의 뉴욕 상류 사회에서 참된 사랑과 참된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에게 엘런은 뉴욕 상류사회의 틈새와 결핍이자 그의 삶의 틈새와 결핍을 동시에 구현 하면서 그 틈새와 결핍을 메울 수 있는 존재, 즉 대상 소타자가 된다. 대상 소타자로서의 엘런은 뉴랜드의 욕망을 작동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뉴랜드는 중요한 순간마다 사회적 규범 속으로 도망침으로써 엘런과의 결합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그의 행동은 욕망의 목적이 대상과의 결합이 아니라 욕망의 순환과 재생산이라는 특성을 보여 준다. 뉴랜드가 마지막 장면에서 엘런과의 재회를 포기하는 것은 엘런을 도달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접근 불가능한 대상으로 유지시키고 그녀를 욕망의 대상으로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런 욕망의 특성을 남녀관계의 특성과 연관시켜서 『순수의 시대』를 남녀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읽어내는 것이다. 주체와 대상 소타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이 결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 자크 라캉, 대상 소타자, 『순수의 시대』, 뉴랜드 아처, 엘런 올렌스카, 남녀관계

I. 서론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I can't love you unless I give you up.¹⁾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의 『순수의 시대』(*The Age of Innocence*)에서 두 주인공인 뉴랜드 아처(Newland Archer)와 엘런 올렌스카 백작부인(Countess Ellen Olenska)의 사랑을 마리안 이드와 비키 머하피(Marian Eide & Vicki Mahaffey)는 “불가능성에 토대를 둔 로맨스”(176)로 규정한다. 두 사람의 사랑에서 육체적인 결합이나 결혼의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된다. 뉴랜드가 사랑을 고백한 순간 엘런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AI 140)라고 말함으로써 두 사람의 사랑이 불가능성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뉴랜드와 엘런의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1870년대의 뉴욕 상류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엄격한 사회적 관습과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엘런의 사촌의 남편인 뉴랜드와 뉴랜드의 아내의 사촌 엘런”(AI 231)의 사랑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금지된 사랑”(Singley 34)이었다. 레나타 살레츨(Renata Salecl) 역시 “사회적 규범의 외적인 구속과 두 사람 모두 결혼한 상태라는 사실”(186)이 두 사람의 사랑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뉴랜드는 한편으로는 “비겁함 때문에”(Witherow 17) 사회적 규범에 맞설 수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순응주의자”(Salecl 187)였기 때문에 전통과 관습에 복종해서 헌신적인 남편으로 성실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한다.

그러나 『순수의 시대』의 마지막 장면에서 엘런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뉴랜드의 결정은 두 사람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회적 규범만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줄리어스 보퍼트(Julius Beaufort)의 사생아 딸인 패니 보퍼트(Fanny Beaufort)가 귀족 가문 출신인 뉴랜드의 아들,

1) Edith Wharton, *The Age of Innocence*(Cambridge: Cambridge UP, 1995) 140.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괄호 안에 AI로 약기하고 페이지 수만 명기하기로 함.

델러스(Dallas)와 약혼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규범의 구속력이 많이 느슨해진데다 뉴랜드의 아내와 엘런의 남편이 모두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뉴랜드와 엘런의 사랑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소에 대한 단서는 제인 갤럽(Jane Gallop)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갤럽은 뉴랜드가 엘런을 다시 보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사 그녀를 만난다 해도 “그녀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35)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엘런에 대한 뉴랜드의 사랑이 환상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진 위더로우(Jean Witherow) 역시 엘런에 대한 뉴랜드의 욕망을 “환상”(16)으로 규정하고, 엘런을 만나지 않기로 한 뉴랜드의 결정을 “대상 소타자(*objet petit a*)를 대장한 것”(39)으로 묘사한다. 살레츨은 “욕망을 작동시키는 도달 불가능한 대상으로 엘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188), 즉 엘런을 대상 소타자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뉴랜드가 엘런과의 재회를 포기한다고 주장한다. 세 사람 모두 뉴랜드가 재회를 포기하는 이유를 환상과 욕망에 연관시킨다. 그렇다면 욕망과 환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뉴랜드에게 엘런이 대상 소타자로 작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뉴랜드와 엘런의 사랑의 불가능성은 욕망의 특성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 이 질문 외에도 『순수의 시대』를 읽다 보면 쉽게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뉴랜드가 엘런에게 끌린 이유는 무엇인가? 왜 뉴랜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랑하는 엘런 대신 결혼과 가정을 택하는가? 뉴랜드와 엘런이 만날 때마다 서로 오해하고 상처받으며 헤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뉴랜드는 엘런과의 재회를 포기하는가?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욕망 이론을 토대로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를 주체와 대상 소타자의 관계로 규정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불가능한 이유를 욕망의 불가능성으로 읽어낸 다음, 두 사람의 관계를 남녀관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읽어내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뉴랜드가 만난 세 여성, 솔리 러시워스(Thorley Rushworth) 부인과 메이 웰랜드(May Welland), 그리고 엘런을 비교한 다음, 세 대상의 차이점을 토대로 엘런을 단순한 쾌락의 대상이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을 작동시키는 도달 불가능한 대상인 대상 소타자로 규정할 것이다.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는 주체와 대상 소타자의 관계로,

두 사람의 사랑이 불가능한 이유는 사회적 규범뿐만 아니라 엘런을 대상 소타자로 영원히 붙잡아 두려는 뉴랜드의 욕망으로 설명할 것이다.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주체와 대상 소타자의 관계로 규정된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를 남녀관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예로 제시할 예정이다. 주체와 대상 소타자의 관계로 이루어진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는 서로 어긋나기만 할 뿐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논문은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를 통해 남녀관계를 살펴보고 『순수의 시대』를 남녀관계의 특성, 즉 “성관계는 없다”(Il n’y a pas de rapport sexual)(Lacan, *Seminar XVII* 134)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로 읽어내려고 한다.

II. 대상 소타자로서의 엘런

뉴랜드가 만난 세 명의 여성 중에서 첫 번째 대상은 메이와 약혼하기 전에 비밀 연애를 한 러시워스 부인이다. 뉴랜드는 러시워스 부인을 “불쌍하고 어리석으며, 허영심이 강했고, 천성적으로 비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가진 매력과 자질들보다는 연애의 비밀스러움과 아슬아슬함에 더 끌린 그런 여자였다”(AI 81)라고 묘사한다. 이 연애 사건은 “그 나이 또래의 젊은이 대부분이 겪었다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인 여성들과 쾌락과 동정의 대상인 여성들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얻은 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며 빠져나오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AI 81). 뉴랜드에게 러시워스 부인은 “사랑과 존경의 대상”(AI 81)이 아니라 “쾌락과 동정의 대상”(AI 81)이었다. 여성을 “사랑과 존경의 대상”과 “쾌락과 동정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뉴랜드의 방식은 프로이트가 “성녀/창녀 콤플렉스”(Freud 182)라 불렀던 것과 유사하다. 성녀의 범주에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인 여성들이 포함되고, 창녀의 범주에는 성적으로 매력적이지만 경멸당하는 여성들이 포함된다. 여성을 이렇게 구분하는 남성들은 타락한 성적 상대(창녀)는 성적으로 원하는 반면, 존경하는 상대는 성적으로 원하지 않는다. 러시워스 부인은 뉴랜드에게 “쾌락”의 대상이자 “동정”과 경멸의 대상일 뿐 “사랑”이나 욕망의 대상은 아니었다.

뉴랜드가 만난 두 번째 대상은 약혼자였다가 아내가 된 메이다. 관습과 세련된 예의범절, 즉 “무엇이 ‘세련되고’ 무엇이 ‘세련되지 않은지’가 몇 천 년 전에 조상들의 운명을 지배했던 토탐에 대한 불가사의한 공포감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AI 12) 1870년대의 뉴욕 상류사회에서 “고상한 취향”(AI 19)을 “신성시했던”(AI 19) 뉴랜드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과 곧 결혼하게 된다는 것에 하늘에 감사드렸다”(AI 21). 메이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완벽한 대상처럼 보였다.

그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별 목적 없는 일련의 감정적인 모험에 일찌감치 넋더리가 나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완벽하게 매력적인 아가씨를 만났기 때문에 결혼했다. 그녀는 평화와 안정, 동지에, 피할 수 없는 의무가 주는 안정된 느낌을 상징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그녀가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인기 있는 젊은 유부녀 중 한 사람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만족스러운 일이었다.

He had married (as most young men did) because he had met a perfectly charming girl at the moment when a series of rather aimless sentimental adventures were ending in premature disgust; and she had represented peace, stability, comradeship, and the steadying sense of an unescapable duty. He could not say that he had been mistaken in his choice, for she had fulfilled all that he had expected. It was undoubtedly gratifying to be the husband of one of the handsomest and most popular young married women in New York, especially when she was also one of the sweetest tempered and most reasonable of wives. (AI 168)

그러나 뉴랜드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것 같았던 메이에게서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메이와 결혼한 것에 대해 “일시적으로 행복하다는 착각을 자주 했지만”(AI 170) 그녀의 장점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그는 그녀가 지닌 최상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젊음 단지 무(無)일뿐이며 아무것도 없는 공허 앞에 드리운 커튼”(AI 171)

인 것은 아닐까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녀의 모든 견해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수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고 상상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본능과 전통이 가르쳐준 대답을 앵무새처럼 따라했으며, 스스로를 대변하는 말을 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해준 말을 그냥 되풀이했다”(AI 71).

그 결과 뉴랜드는 결혼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숨 막힐 것 같이 답답한 결혼생활에 자신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결혼 생활 밖의 다른 삶을 상상하며 자유로워지기 위해 “수동적인 해결책으로서 메이의 상징적 죽음”(Witherow 28)을 그려보기도 한다.

자신의 삶 바깥에 다른 삶들이 있고 뉴욕 너머에 다른 도시들이 있으며, 그의 세계 너머에는 완전한 세계가 있다는 느낌을 얻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머리가 맑아지고 숨쉬기가 더 쉬워졌다 ... ‘독감에 걸려 죽는다고!’ ... ‘그렇지만 나는 이미 독감에 걸렸소. 나는 죽은 몸이오 -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소’ ... 그러다 갑자기 그 말장난에 터무니없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죽은 사람이 메이라면 어떨까! 그녀가 죽는다면-곧 죽어서 - 그를 자유롭게 놓아준다면! 그 따뜻하고 친숙한 방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죽기를 바라면서 그곳에 서 있는 느낌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매혹적이며,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바로 깨닫지 못했다. 그는 그런 기회를 통해 자신의 병든 영혼이 매달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얻었다고 느낄 뿐이었다. 그렇다. 메이가 죽을지도 모른다.

... the fact of seeing other houses, roofs, chimneys, of getting the sense of other lives outside his own, other cities beyond New York, and a whole world beyond his world, cleared his brain and made it easier to breathe ... “Catch my death!” he echoed; and he felt like adding: “But I’ve caught it already. I AM dead—I’ve been dead for months and months.” And suddenly the play of the word flashed up a wild suggestion. What if it were SHE who was dead! If she were going to die—to die soon—and leave him free! The sensation of standing there, in that warm familiar room, and looking at her, and wishing her dead, was so strange, so fascinating and overmastering, that its enormity did not immediately strike him. He simply

felt that chance had given him a new possibility to which his sick soul might cling. Yes, May might die—people did: young people, healthy people like herself: she might die, and set him suddenly free. (AI 234-35)

아내의 죽음을 상상해볼 정도로 결혼생활에서 답답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뉴랜드는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결혼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그는 “충실한 남편”(AI 273)으로 살았고, “고상한 사색거리와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멋진 대상들, 그에게 힘이 되고 자량이 될 한 위대한 사람과의 우정”(AI 273)을 즐겼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남자로서 더는 바랄 것이 없는 삶”(AI 273)을 살았다. 그러나 “더 바랄 것이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뉴랜드는 자신의 삶에서 결여와 결핍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놓쳤다고, 인생의 꽃을 놓쳤다”(AI 273)고 생각했다. 메이와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뉴랜드에게는 “죽은”(AI 234) 삶이었다. 여기서 죽음은 메이에 대한 욕망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메이는 뉴랜드에게 한때 사랑의 대상이었고 최고의 “점잖음”(AI 171)과 초연함으로 존경 받는 대상이 될 수는 있었지만, “비이성적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끊임없이 솟구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열망”(AI 180)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은 아니었다.

메이와 달리 엘런은 뉴랜드에게 “끊임없이 솟구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열망”을 불러일으킨 “열정의 대상”(AI 197)이었다. 엘런과 헤어진 후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도 뉴랜드는 그녀를 그리워하고 열망했다. 뉴랜드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엘런은 러시워스 부인이나 메이와 다르다. 러시워스 부인은 “쾌락과 동정의 대상”(AI 81)이었을 뿐이고, 메이는 한 때 사랑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세 대상의 또 다른 차이점은 러시워스 부인이나 메이가 뉴랜드에게 도달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면, 엘런은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뉴랜드와 엘런이 만났을 때 뉴랜드는 엘런의 사촌인 메이와 약혼한 상태였고 엘런은 비록 별거 중이라 해도 결혼한 상태였다. 뉴욕 상류사회의 강력한 사회적 규범들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처음부터 불가능해지고 뉴랜드에게 엘런은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 이런 도달불가능성이 뉴랜드에게 끊임없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살레츠크와 위더로우의 끊임없이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도달 불가능한 대상인 엘런을 “대상 소타자”(object petit a)(Salecl 187; Witherow 16)로 규정한다.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도달할 수 없는 대상”(Witherow 4)이자 “욕망의 대상 원인”(the object cause of desire)(Salecl 187)인 대상 소타자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체의 형성 과정에 대한 라캉의 이론부터 살펴봐야 한다.

외부 주변세계와 자기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신체의 각 부분을 파편적으로 인식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라캉은 “거울단계”(the Mirror Stage)(*Écrits: A Selection* 1-7)라고 부른다. 아직 자기 힘으로 설 수도 없는 생후 6-8개월 된 아이는 완벽한 형태를 갖춘 거울 속의 이미지를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그것을 ‘나’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거울단계에서 아이가 인식한 ‘나’는 실제 ‘나’보다 작고 뒤집혀진 외부의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신체의 통일성과 총체성을 가정한다는 의미에서 허구적인 이미지다. 이렇게 같지 않은 것을 같은 것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상상계(the Imaginary)고, 거울단계에서 상상계적인 동일시를 통해 만들어진 ‘나’가 에고(ego)다.

아이가 자신과 자신의 이미지를 동일시함으로써 만들어낸 것이 에고라면, 주체는 언어에 의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규정된 ‘나’다. 에고가 총체성을 바탕으로 상상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주체(subject)는 분열을 바탕으로 상징계(the Symbolic)에 의해 만들어진다. 상징계란 자기 자신을 거울 이미지나 어머니, 혹은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는 상상계적인 동일시 관계에 경계선을 그어서 둘로 나눠주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상상계는 동일성의 체계인 반면 상징계는 차이의 체계다. 상징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장치는 오이디푸스 현상과 언어 구조다. 오이디푸스 현상과 언어는 아이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총체성을 분열시키고, 총체성을 상징하는 기표인 남근(phallus)을 상징적으로 거세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이디푸스의 발달과정은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아이는 자신과 어머니를 동일시함으로써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자신도 원하고 어머니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욕망의 대상인 남근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버지가 이중의 금지로 작용해서 어머니에게는 ‘네 아이의 자식을 낳지 마라,’ 아이에게는 ‘네 어머니와 자지 마라’라고 명

령한다. 이 단계에서 아이는 금지로 작용하는 아버지의 법에 접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아이는 아버지의 법을 인정하고 남근으로 존재하는 것을 포기한 다음 남근을 가진 사람인 아버지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자신과 아버지를 동일시하게 되면 아이는 오이디푸스를 통과하게 된다. 오이디푸스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주체는 이름을 갖게 되고 가족구조 내에서 하나의 위치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오이디푸스를 거치면서 주체는 상징적 거세를 당하기 때문에 분열, 혹은 분리를 겪게 된다.

언어체계 역시 오이디푸스 현상과 마찬가지로 주체를 분열시킨다. 아이는 ‘나’라는 문법적인 범주를 명확하게 습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개별성을 획득하고 자신을 명확한 개인으로 정립한다. 언어는 아이를 주체로 정립시켜주는 전제조건이지만 반면에 오이디푸스 현상과 마찬가지로 주체를 분열시킨다. ‘나’라는 기표를 통해서 ‘나’는 재현되지만 ‘나’와 ‘나’라는 기표 사이에는 틈새가 생겨난다. ‘나’가 발화하는 ‘나’와 발화된 ‘나’로 분열되기 때문이다. 라캉 자신의 예를 들면, “나는 거짓말하고 있다”(I’m lying)(Lacan, *Four Concepts* 139)라는 문장에서 발화의 주체인 ‘나’ (“나는 말한다”의 ‘나’)와 “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 속의 발화된 주체 ‘나’는 일치하지 않는다. 발화의 주체인 ‘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진실한 사람인 반면, 발화된 것의 주체인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상징계에 진입함으로써 주체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아이는 상징적인 거세와 분열을 경험하게 되고 거세와 분열을 통해 결여가 생겨난다. 그리고 “이 결여를 통해 욕망이 형성된다 ... 욕망에 의해 주체와 잃어버린 대상과의 관계가 다시 만들어진다”(Lacan, *Écrits* 853). 상징적 거세를 통해 남근을 박탈당한 주체는 특정한 대상과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결여를 메우고자 한다.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 \diamond a$)가 된다. 여기서 $\$$ 는 남근을 박탈당하고 거세된, 분열된 주체를 의미하고, a 는 주체가 결여를 메우기 위해서 “(소)타자에게서 찾는 욕망의 대상”(Lacan, *Séminaire VII* 177)을 의미한다. a 는 “(소)타자”를 나타내는 프랑스어, “autre”의 첫 글자로서 상징계를 의미하는 대타자, “Autre”(Other)와 구분하기 위해 항상 소문자로 표기되고 “*objet petit a*”로 불린다. 이 논문에서는 소타자(other)에게서 찾는 욕망의 대상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objet petit a*”를 “대상 소타자”로 통일해

서 사용했다.

그러나 대상 소타자와의 결합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체의 믿음은 환상일 뿐이다. “환상은 주체가 자신의 욕망을 구성하거나 조직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욕망을 받쳐 주는 버팀목이다”(Homer 86). 그래서 분열된 주체가 대상 소타자와 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공식은 환상의 공식이기도 하다. 주체의 욕망이 결코 충족될 수 없다는 “불가능성”(Clément 179)은 환상의 공식 ($\$ \diamond a$)에서 \diamond 라는 기호를 통해 드러난다. \diamond 는 특정한 대상이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주체가 그 대상과 상상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더 크다’를 나타내는 부등식 부호인 ($>$)와 ‘더 작다’를 나타내는 부등식 부호인 ($<$)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기호로, 주체의 욕망이 결코 완전하게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욕망의 구조상, 욕망의 대상인 대상 소타자에는 항상 불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Lacan, *Hamlet* 36).

1950년대 말에 라강은 대상 소타자를 주체가 결여를 메우기 위해 추구하는 욕망의 대상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그는 1960년대 초반부터는 대상 소타자를 욕망의 “대상 원인”(Lacan, *Four Concepts* 168)으로 재정의한다. 대상 소타자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하게 만드는 대상이다”(Lacan, *Hamlet* 28). 욕망의 대상은 원하던 대상으로서 획득 가능한 대상이다. 그러나 대상 소타자는 욕망이 향하는 대상, 즉 단순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 손에 넣을 수 없는 대상이자 욕망을 작동시키는, 욕망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이런 구분을 『순수의 시대』에 적용해보면 러시워스 부인은 사랑의 대상도, 욕망의 대상도 아니다. 그녀는 단순한 쾌락의 대상일 뿐이다. 반면에 메이는 뉴랜드가 한때 사랑했던 사랑의 대상일 뿐 욕망의 대상도, 대상 소타자도 아니다. 왜냐하면 뉴랜드가 메이와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것은 그가 아직 자신과 뉴욕 상류사회에서 틈새나 결핍을 발견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메이와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결핍을 메우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완벽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엘런은 뉴랜드 자신의 결핍이자 뉴욕 상류사회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뉴랜드에게 심어줌으로써 그녀와 결합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 사랑의 대상이자 욕망의 대상이었고, 동시에 도달 불가능한 대상으로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 소타자의 위치를 차지했다. 대상 소타자는 욕망의

대상이지만 모든 욕망의 대상이 대상 소타자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욕망의 대상이 대상 소타자보다 더 큰 범주라 할 수 있다.

대상 소타자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대상 소타자가 욕망을 작동시키는 대상이라 해도 욕망의 목적이 대상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주변을 선회하는 것”(179)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욕망의 실현은 그것이 충족되는 것, 충분히 만족되는 것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욕망의 재생산, 욕망의 순환 운동”(Žižek, *Looking Awry* 7)이 된다. 대상 소타자는 욕망의 충족을 끝없이 지연시킴으로써 욕망을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대상 소타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욕망의 대상인 대상 소타자가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며, 주체의 욕망은 결코 완전하게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소타자에는 항상 불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대상 소타자는 도달 불가능한 대상으로 욕망의 원인이 되는 대상이며, 욕망의 목적은 대상 소타자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실현을 계속 연기함으로써 욕망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이다. 대상 소타자의 이런 특성들은 『순수의 시대』에서 엘런이 어떤 의미에서 뉴랜드에게 대상 소타자로 작용하고, 뉴랜드가 대상 소타자로서의 엘런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살펴보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렇다면 엘런은 어떤 점에서 대상 소타자로 규정될 수 있는가? 대상 소타자로서 엘런이 보여주는 특성들은 무엇일까? 엘런이 뉴랜드에게 열망의 대상이 된 이유는 먼저 “그녀는 달랐어”(AI 279)라는 뉴랜드 자신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엘런은 메이와 달랐고, 메일로 대변되는 뉴욕 상류사회와 달랐다. 그녀는 “메이 아닌 모든 것”(김숙재 13)이었고, 뉴욕 상류사회 아닌 모든 것이었다.

메이를 비롯한 1870년대의 뉴욕 상류사회 사람들이 관습과 세련된 예의 범절, 고상한 취향 같은 사회적 규범을 절대시하면서 진실을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행하지도 않았으며 “불쾌한 것”(AI 27)을 모두 삼간 채 친절함을 가장한 가식적인 삶을 산 반면 엘런은 불행한 결혼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남편의 비서와 도망을 쳤다”(AI 20)는 소문에 휩싸였고, 고향인 뉴욕으로 돌아와서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이혼을 시도했으며, 격식과 예의범절을 무시했고, 상류사회의 아웃사이드터들이나 예술가들과 교류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했다. 그녀는 메이를 포함한 1870년대 뉴욕 상류사회의 체제와 다른 “타자성의 자리”(Witherow 22)를 차지했다. 타자로서 엘린이 나타내는 것은 “매우 특정한 상류사회 바깥에 존재하는 세계”이자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이 상류사회에 결여된, 상류사회가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가치들이다”(Pöder 127). 그리고 엘린의 이런 타자성이 바로 뉴랜드가 삶에서 놓친 “무엇”이자 그의 삶에 존재하는 결여와 결핍이다.

뉴랜드는 엘린의 타자성을 통해 뉴욕사회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엘린을 통해 그는 “자신의 고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 뉴욕이 황당할 정도로 작고 멀어 보인다”(AI 66)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1870년대의 뉴욕 상류사회를 지칭하는 “순수의 시대”가 불쾌한 진실을 회피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배제하며, 상상력이 결여되고, 차이를 배제하는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뉴랜드는 엘린을 통해 고상함을 지향하는 완벽한 사회라고 생각했던 뉴욕의 상류사회에 난 틈새를 발견했다.

엘린은 타자성을 통해 뉴욕 상류사회의 틈새와 결핍이자 뉴랜드의 삶에 있어서의 틈새와 결핍을 동시에 구현하는 존재가 된다. 뉴욕 상류사회와 뉴랜드의 삶에서 결여된 것은 참된 감정과 참된 사랑이다. 뉴랜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삶의 전부가 되는 그저 두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계”(AI 230)이자 “그의 삶 바깥에 있는 다른 삶, 그의 세계 너머에 있는 완전한 세계”(AI 234)를 원한다. 이 “완전한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살레츨은 “이데올로기의 장치 뒤에 억압되거나 감춰진 무엇 - 의례에 빠져 있는 개인들의 열정, 그들의 비밀스러운 ‘참된’ 사랑”(180)이자 제도 밑에 숨겨져 있는 “가식적이고 공적인 감정이 아닌 ‘참된’ 감정”(180)으로 설명한다. 뉴랜드는 엘린을 통해 참된 감정과 참된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녀를 통해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결여를 메우려 한다.

공허이자 틈새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틈새를 메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대상 소타자로서 엘린이 보여주는 첫 번째 특성이라면, 또 다른 특성은 그녀가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뉴욕 상류사회의 사회적 규범들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처음부터 불가능해지고 뉴랜드에게 엘린은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 엘린은 도달 불가능한 대상으로 뉴

랜드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욕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런 도달 불가능성이 뉴랜드의 “욕망을 작동시킨다”(Salecl 188). 엘런은 뉴랜드가 그리워하는 “이루지 못한 사랑”(AI 197)이자 “열정의 대상”(AI 180)이며 “끊임없이 솟구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열망”(AI 180)의 대상이 된다.

이 불가능성은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에서 지속되고 끊임없이 재확인된다. 뉴랜드는 메이와 아직 약혼 상태일 뿐 결혼한 것은 아니라면서 결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지만, 결혼을 앞당기자는 뉴랜드의 제안을 메이가 수락하고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뉴랜드와 엘런의 결합 불가능성은 더욱 굳어진다. 뉴랜드와 엘런 모두 결혼한 상태에서 뉴랜드가 찾아낸 두 가지 가능성은 불륜을 통한 육체적 결합이거나 함께 뉴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지만, 메이의 임신 소식으로 두 사람의 결합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또한 26년 후 메이가 세상을 떠난 후 파리에 간 뉴랜드는 엘런과 재회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 두 사람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합의 가능성이 배제된 불가능성에 기반하고, 엘런은 계속해서 뉴랜드에게 도달할 수 없는 대상으로 남아 있다. 뉴랜드에게 엘런이 도달할 수 없는 대상 소타자라는 것은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만 서로 가까이 있어요”(AI 231)라는 엘런의 말에 잘 드러나 있다.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만 엘런은 뉴랜드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엘런이 대상 소타자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엘런이 항상 “바로 그곳, 안전하지만 멀찌감치 떨어진 곳”(AI 197)에 위치해야 한다. 그래서 뉴랜드가 대상 소타자인 엘런과 상상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가깝지만, 대상 소타자인 엘런이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멀다.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는 수수께끼처럼 항상 “멀면서도 가깝다”(AI 227).

불가능성이 욕망의 작동 원인이 되는 예로는 궁정풍 사랑(courtly love)이 있다. 궁정풍 사랑이란 지위가 자신보다 월등하게 높거나 이미 결혼한 여성에게 무한한 존경심을 품고 우아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궁정풍 사랑의 구조에는 이미 불가능성이, 사랑의 성취를 가로막는 장벽이 내재되어 있다. 궁정풍 사랑에서 숙녀는 욕망을 촉발시키는 불가능한 대상 원인인 대상 소타자다.

그러나 숙녀는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상화된 이미지일 뿐이다. 긍정풍 사랑에서 숙녀는 남자 연인이 이상화시킨 이미지와 환상을 투사하는 거울로 작용한다. 여기서 대상 소타자로서 엘런의 또 다른 특성인 욕망과 환상의 관계가 나타난다. “환상의 공간은 텅 빈 표면으로, 욕망이 투사될 수 있는 일종의 스크린으로 작용한다”(Žižek, *Looking Awry* 8)는 지젝의 말을 토대로 위더로우는 “엘런은 뉴랜드가 자신의 욕망을 반영한 환상을 투사하는 빈 스크린으로 작용한다”(3)고 주장한다. “환상은 일반적으로 주체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시나리오로 간주된다”(Žižek, *Looking Awry* 6). 엘런에 대한 뉴랜드의 욕망을 환상을 근거로 형성된다. “올렌스카 백작부인과 결혼을 꿈꿀 수 있다는 생각은 제정신으로는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 그녀가 이제 그의 기억 속에서 한 줄로 늘어진 환영들 중 가장 애처롭고 가슴 아픈 환영으로만 남아 있었을”(AI 168) 때, 뉴랜드는 엘런에 대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려나온 열정”(AI 210) 때문에 엘런에게 바친 공간, 즉 환상의 공간을 짓는다.

그는 그녀가 그의 비밀스러운 생각과 갈망 한가운데 군림하고 있는 일종의 성소를 지었다. 조금씩 그것은 그의 진정한 삶의 장이 되었고 그의 유일한 이성적인 활동의 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읽은 책들과, 마음의 자양분이 되어준 생각과 느낌, 그의 판단과 상상을 그곳으로 가져갔다. 그 바깥 실제 삶의 장에서 그는 자신이 점점 더 비현실적이고 불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움직였고, 낮이 나간 사람이 자기 방의 가구에 계속 부딪히듯이 친숙한 편견과 전통적인 관점과 충돌했다.

He had built up within himself a kind of sanctuary in which she throned among his secret thoughts and longings. Little by little it became the scene of his real life, of his only rational activities; thither he brought the books he read, the ideas and feelings which nourished him, his judgments and his visions. Outside it, in the scene of his actual life, he moved with a growing sense of unreality and insufficiency, blundering against familiar prejudices and traditional points of view as an absentminded man goes on bumping into the furniture of his own room. Absent—that was what he was: so absent from everything most densely real and near to those about him that it sometimes startled him to find they still imagined he was there. (AI 210)

엘런은 뉴랜드의 환상이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그 결과 사실 뉴랜드는 엘런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었으며, 뉴랜드에게 엘런은 “책이나 그림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연인”(AI 273)처럼 “추상적인”(AI 273) 존재였다. 그녀는 “그가 놓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환영”(AI 273)으로 존재했다. 엘런이 뉴랜드에 의해 긍정풍 사랑의 여자 연인처럼 “가상의” “추상적인” “환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갤럽의 지적처럼 뉴랜드는 엘런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Gallop 35), “그녀의 삶에 대해 너무 이상할 정도로 아는 게 거의 없었다”(AI 282). “뉴랜드 자신도 시인했듯이 그의 기억 속에 있는 엘런의 이미지가 ‘실제’ 엘런보다 더 강력하다”(Salecl 186).

이렇게 환상의 “성소”(AI 273)에서 엘런이라는 “환영”(AI 273)을 좇다 보니 뉴랜드는 “그 바깥 실제 삶의 장에서는 점점 더 비현실적이고 불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움직였고”(AI 210) 현실과 괴리된 꿈의 영역에서 살게 되었다. 환상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뉴랜드에게 엘런은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꿈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당신과 내가 함께 하리라는 당신의 꿈 말인가요? ... 당신도 그대로 내 곁에 앉아서 함께 꿈이 아니라 현실을 봐요”(AI 230). 환상에 빠져 있는 뉴랜드와 현실을 직시하는 엘런은 다음 대화에서 가장 극적으로 대비된다.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으니 당신의 정부로 당신과 살아야 한다는 게 당신 생각인가요?” ...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삶의 전부가 되는 그저 두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말이에요” ... “아, 세상에-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 그런 나라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나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내 말을 믿어요. 그들 모두 실수로 중간역에서 내렸어요. 볼로뉴나 피사, 혹은 몬테카를로 같은 곳에서요. 그런데 그곳은 자신들이 떠난 이전 세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좁고 지저분하고 난잡할 뿐이었어요” ... “고르곤이 당신의 눈물을 마르게 해버렸군요” ... “글쎄요.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어요” ...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만 서로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들 등 뒤에서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엘런 올렌스카의 사촌의 남편 뉴랜드 아처와 뉴랜드 아처의 아내의 사촌 엘런 올렌스카일 뿐이에요” ... “나는 그것

을 뛰어 넘었소” ... “아뇨,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랬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Is it your idea, then, that I should live with you as your mistress—since I can’t be your wife?” ... “I want—I want somehow to get away with you into a world where words like that—categories like that—won’t exist. Where we shall be simply two human beings who love each other, who are the whole of life to each other; and nothing else on earth will matter.” ... “Oh, my dear—where is that country? Have you ever been there?” ... “I know so many who’ve tried to find it; and, believe me, they all got out by mistake at wayside stations: at places like Boulogne, or Pisa, or Monte Carlo—and it wasn’t at all different from the old world they’d left, but only rather smaller and dingier and more promiscuous.” ... “Yes, the Gorgon HAS dried your tears,” ... “Well, she opened my eyes too; it’s a delusion to say that she blinds people ... We’re near each other only if we stay far from each other. Then we can be ourselves. Otherwise we’re only Newland Archer, the husband of Ellen Olenska’s cousin, and Ellen Olenska, the cousin of Newland Archer’s wife, trying to be happy behind the backs of the people who trust them.” “Ah, I’m beyond that,” ... “No, you’re not! You’ve never been beyond. And I have,” she said, in a strange voice, “and I know what it looks like there.” (AI 231)

현실을 직시하는 엘런과 달리 뉴랜드는 엘런과 함께 하면 참된 감정과 참된 사랑이 있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다음에 살펴볼 또 다른 특성은 욕망의 주체인 뉴랜드가 엘런과의 결합을 계속 연기한다는 점이다.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는 욕망의 목적이 욕망의 실현이 아니라 욕망의 재생산이라는 욕망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뉴랜드는 엘런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사회적 규범으로 도망침으로써 엘런을 계속 도달할 수 없는 대상 소타자로 유지시킨다. 엘런과의 결합을 금지했던 사회적 규범이 이제는 욕망의 순환운동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대상 소타자로서 엘런의 두 번째 특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엘런이 계속 도달할 수 없는 대상으로 남아있게 된 것은 뉴랜

드가 욕망의 실현이 불가능하도록 중요한 순간마다 사회적 규범 속으로 도망쳐서 엘런에 대한 욕망을 재생산해냈기 때문이다. 엘런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빠진 뉴랜드는 메이를 찾아가서 결혼식을 앞당기자고 간청하고, 메이가 동의하자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며, 메이의 임신 소식을 듣자 엘런을 따라 유럽으로 떠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충실한 남편으로 선풍한 시민으로 충실하고 품위 있게, 남자로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삶을 산다. 그는 “신사는 조국에 머물면서 절제한다”(AI 276)는 핑계를 대며 파리 여행을 피했고, 파리에 가서도 엘런을 재회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 지젝은 『순수의 시대』 마지막 장면에서 뉴랜드가 엘런과의 재회를 포기한 것이 메이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메이는 사회적 규범의 대리인이라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엘런과의 만남을 포기한 것 역시 사회적 규범으로 도망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아내가 모르고 있다고 가정되는 경우에만 올렌스카 백작부인과 의 연애를 계속할 수 있다. 아내가 자신의 연애에 대해 줄곧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비록 아내가 지금은 세상을 떠나서 백작부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을 장애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작부인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된다.

... he can pursue his affair with the Countess Olenska only insofar as the wife is supposed not to know about it - the moment Newland learns that the wife knew about his affair all the time, he can no longer pursue his love interest in the Countess, although his wife is now dead and there is no obstacle to him marrying the Countess.²⁾

위더로우는 언어라는 사회적 규범이 욕망의 재생산과 순환운동을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엘런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뉴랜드 때문에 두 사람은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엘런은 그런 뉴랜드에게 “나는 당신과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아요”(AI 109)라고 말하며 두 사람

2) Slavoj Žižek, “Afterword: With Defender Like These, Who Needs Attackers,” *The Truth of Žižek*,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07, p. 250.

사이에 존재하는 소통 불능 상태를 지적한다. 예를 들어 “need”라는 단어를 엘런은 “욕구”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뉴랜드는 “필요”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같은 단어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항상 오해가 생겨난다. 스카이트리클리프와 보스톤의 선실, 그리고 맨슨 밉고트 부인 집으로 가는 마차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항상 소통 불능 상태로 끝나고 만다. 위더로우는 뉴랜드와 엘런의 이런 언어 소통 불능 상태가 결여를 야기해서 약화된 욕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욕망이 약해지면 불안이 야기된다. 그런 경우 욕망을 형성하는 결여를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 뉴랜드와 엘런이 헤어질 때마다 욕망이 재생산되고 강화된다.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차이의 간격에 의해 욕망의 충족을 방지하는 거리가 유지된다. 뉴랜드와 엘런은 욕망의 순환성의 포로들로서 차이의 간격을 절대 메울 수 없다. 그곳에서 그들은 안전하게, 서로 가까이 있었다. 그러나 각자의 운명에 얽매인 채 ...

If desire wanes, anxiety occurs, in which case we must reproduce the lack that constitutes desire. With each meeting, the gap of difference maintains the distance that prevents fulfillment of desire. Newland and Ellen, as prisoners of the circularity of desire, are never able to close the gap of difference. There they were, close together and safe and shut in; yet so chained to their separate destinies ...³⁾

결혼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건, 아니면 언어 체계를 통해서건, 뉴랜드는 욕망의 충족을 무한히 지연시켜서 욕망을 구성하는 결핍을 계속해서 재생산해낸다. “욕망의 실현은 그것이 충족되는 것, 충분히 만족되는 것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욕망의 재생산, 욕망의 순환운동과 함께 일어난다 ...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대상의 결핍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대상에 너무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결핍 자체를 상실할 위험이다. 욕망의 소멸이 불안을 초래한다”(Žižek, *Looking Awry* 7-8)는 지적의 말이 뉴랜드를 통해 입증

3) Jean Witherow, “A Dialectic of Deception: Edith Wharton's *The Age of Innocence*,” *Mosaic: A Journal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Literature*; Winnipeg, 2003, 16. Web. 10 Jan. 2018.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욕망의 재생산과 순환운동은 라캉의 충동(drive)과 희열(jouissance) 개념과 연관된다. 충동은 대상 소타자와 마찬가지로 대상과 결합해서 완전한 만족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대상 주변을 끝없이 선회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욕망의 순환운동은 충동처럼 반복을 통해 고통을 수반한 쾌감을 만들어내고, 쾌락원칙을 위반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쾌감”(Lacan, *Four Concepts* 184)이 희열이다. 희열은 과도한 흥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쾌감(pleasure)의 반대 개념이다. 쾌감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보호 장치인 반면에 희열은 그런 상태를 붕괴시키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라캉에게 쾌락원칙은 과도한 쾌감을 방지하려는 상징계의 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쾌락원칙은 “‘그것’(the Thing)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다”(Lacan, *Ethics* 69). 여기서 ‘그것’은 기의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영역(the Ineffable)인 실재계(the Real)의 사물, 즉 최초의 욕망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근친상간적인 욕망의 대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절대 충족될 수 없는 여분으로 남아 계속 주체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대상 소타자와 연관된다. 『순수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욕망의 순환운동과 재생산은 뉴랜드가 희열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엘런에 대한 사랑을 통해 뉴욕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을 갈망한다. 참된 사랑과 참된 감정이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갈망은 그가 속해 있는 1870년대의 뉴욕 상류사회의 규범을 위반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내게는 위로 올라간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군.” 갑자기 그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현실의 마지막 그림자가 희미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는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앉아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짙어지는 어스름 속에 발코니에서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벤치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마침내 창문을 통해 불빛이 흘러나왔고 점차 후 남사 하인이 발코니를 나와 차양을 올리고 덧문을 닫았다.

그것이 자신이 기다렸던 신호이기라도 한 것처럼 마침내 뉴랜드 아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혼자 호텔로 걸어갔다.

“It’s more real to me here than if I went up,” he suddenly heard himself say; and the fear lest that last shadow of reality should lose its edge kept him rooted to his seat as the minutes succeeded each other.

He sat for a long time on the bench in the thickening dusk, his eyes never turning from the balcony. At length a light shone through the windows, and a moment later a man-servant came out on the balcony, drew up the awnings, and closed the shutters.

At that, as if it had been the signal he waited for, Newland Archer got up slowly and walked back alone to his hotel. (*AI* 284)

『순수의 시대』의 마지막 장면에서 뉴랜드 아치는 26년 동안 마음속에 그려왔던 엘런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 버린다. 엘런과의 재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캐시 밀러 해들리(Kathy Miller Hadley)는 “뉴랜드가 실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위험을 두려워했을 수 있다. 아니면 엘런이 너무 변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니면 엘런을 포기한 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였는지 메이가 이해하고 있었다는 델러스의 말에 뉴랜드가 너무 놀라서 자기 ‘마음을 헤아려서 안쓰럽게 생각했던’ 메이에 대한 기억을 흐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270)고 여러 가능한 이유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엘런을 대상 소타자로 간주하는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뉴랜드의 포기는 엘런을 도달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접근 불가능한 대상으로 유지시키고 그녀를 욕망의 대상으로 붙잡아 두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의 관점에서는 이 장면의 여러 가지 요소가 상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엘런의 아파트가 5층에 있고 뉴랜드가 아파트 건물의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접근 불가능한 대상으로서 엘런의 위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위로 올라간 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더 사실적으로 느껴진다”(AI 284)는 뉴랜드의 말은 오랜 시간 동안 “엘런이 뉴랜드가 자신의 욕망을 반영한 환상을 투사하는 빈 스크린”(Witherow 3)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뉴랜드에게 환상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에게는 환상이 오히려 실제보다 더 사실적이 되어 버렸다. 환상이 현실이 된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뉴랜드는 엘런을 가까우면서도 먼 5층에 계속 붙잡아 두어야 했다. 뉴랜드가 마음의 성소 안에 이상화된 성스러운 대상으로 엘런을 간직하는 것처럼, 남자 하인은 아파트의 덧문을 닫음으로써 엘런을 접근 불가능한 대상으

로서 아파트라는 네모난 공간 안에 영원히 가둬 버린다. 이것을 위더로우식으로 표현하면 “대상 소타자를 매장한 것”(39)이 된다.

엘런과의 재회를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그 결과 엘런과의 결합 가능성을 완전하게 없애 버림으로써 뉴랜드는 엘런을 대상 소타자의 위치에 영원히 고정시켜 놓는다. 이런 해석은 다음과 같은 살레츨의 말에 의해 확실하게 입증된다.

요구의 수준에서는 뉴랜드의 열정이 엘런과 결합하고 싶은 소망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의 욕망은 엘런과의 결합을 포기하는 것이다. 뉴랜드는 자신의 욕망을 작동시키는 접근 불가능한 대상으로 엘런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규범에 복종한다. 이 논리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가 된 뉴랜드가 파리 여행을 하는 동안 엘런을 만나지 않기로 결심함으로써 깊은 사랑의 실현을 마침내 포기해 버리는 이 소설의 결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On the level of demand, Newland's passion could be perceived as his wish to unite with Ellen; however, his desire is to renounce this unification. Newland submits himself to the social code in order to maintain Ellen as the inaccessible object that sets his desire in motion. This logic enables us to understand the ending of the novel when Newland, now widowed, during his trip to Paris decides not to see Ellen and thus finally gives up the realization of his great love.⁴⁾

뉴랜드는 엘런을 접근 불가능한 대상으로 영원히 붙잡아두기 위해 그녀와의 재회를 포기한다. 그리고 사랑의 실현을 포기한 대신 엘런을 대상 소타자로 유지시킴으로써 욕망을 계속 추구한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충실하게 따르는 뉴랜드의 이 마지막 행동은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Lacan, *Séminaire VII* 319)는 라캉적인 의무를 잘 따르고 있다. 라캉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Lacan, *Séminaire VII* 314)을 정신분석의 윤리라고 간주한다.

4) Renata Salecl, “I Can't Love You Unless I Give You Up,” *gaze and voice as love objects*, Durham: Duke UP, 1996, p. 188.

뉴랜드와 엘런 사이의 연애에 대한 그 때까지의 모든 포기행위는 “변명의 윤리학”에 의존한다 ... 오로지 최후의 포기만이 윤리적 행위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더 이상의 어떤 공리적인 요구도 없기 때문이다.

All previous renunciations of the love affair between Newland and Ellen depended on an “ethics with the excuse.” ... Only the last renunciation has the meaning of an ethical act because there is no utilitarian demand any more.⁵⁾

뉴랜드의 행동은 어떤 “공리적인 요구”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욕망에 따른” 윤리적인 행동이다. 뉴랜드가 엘런과의 재회를 포기하는 것은 엘런을 도달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접근 불가능한 대상으로 유지시키고 그녀를 욕망의 대상으로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리안 이드와 비키 머하피가 지적한 뉴랜드와 엘런의 사랑의 불가능성은 주체와 대상 소타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가능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III. 남녀관계

연인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믿음 중 하나는 두 사람이 조화로운 관계, 즉 서로의 결점을 보완해서 완전한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완전한 조화 대신 오해와 어긋남만을 보여주는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는 연인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과연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는 오히려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는 결코 조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Evans 181)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오해와 상처, 어긋남의 연속이었다.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소통 불능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연인 관계를 진전시키기 보다는 언제나 같은 자리로 되돌아 왔으며, 항상 어긋남 타이밍에 굴복해야 했다. 마치 줄리엣의 거짓죽음을 알려

5) *Ibid*, p. 189.

주는 로렌스 신부의 편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줄리엣이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자결하는 로미오나, 기도 중인 클로디어스는 정작 망설이다 죽이지 못했으면서 어머니 방 커튼 뒤에 숨어서 엿듣고 있던 플로니어스를 전광석화처럼 칼로 찌르는 햄릿처럼, 뉴랜드와 엘런의 사랑은 운명의 장난 같은 어긋난 타이밍에 항상 좌절해야 했다. 엘런이 오페라 하우스에 등장한 날 그녀를 사랑하게 될 줄 몰랐던 뉴랜드는 엘런이 몰고 온 스캔들로부터 메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메이와의 약혼을 발표함으로써 스스로 엘런과의 결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는 밉고트 가를 위해, 이 혼하려는 엘런을 설득해서 별거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또 다시 엘런과의 결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세인트 어거스틴에서 휴가 중인 메이를 찾아가 결혼을 앞당기자고 간청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엘런의 사랑을 확인한 순간 결혼을 앞당기겠다는 메이의 전보를 받게 되었다. 어긋난 타이밍의 가장 결정적인 예는 메이의 임신이었다. 뉴욕에 돌아온 엘런은 메이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고 유럽으로 떠날 결정을 하고, 엘런을 따라 가겠다는 뉴랜드의 계획은 메이의 임신 소식으로 무산되고 만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긋나는 두 사람의 사랑은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항상 “멀면서도 가깝다”(AI 227).

뉴랜드와 엘런의 이런 어긋남은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주체와 대상 소타자의 관계에서 생겨난 욕망의 불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대상 소타자로 존재하는 엘런은 도달할 수 없는 대상으로서 뉴랜드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그녀는 뉴랜드의 환상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녀를 도달할 수 없는 대상으로 영원히 붙잡아 두려는 뉴랜드의 욕망 때문에 두 사람의 결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라캉은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체와 대상 소타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결합의 불가능성이나 조화로운 관계의 불가능성을 남녀 관계의 주된 특성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성관계는 없다”(Il n’y a pas de rapport sexual)(Lacan, *Séminaire XVII* 134)는 짧은 공식으로 제시한다. 이 공식은 흔히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exual relationship”으로 번역되지만, 딜런 에반스(Dylan Evans)는 이 공식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There is no relation between sexes)(181)로 바꿔서 표현한다. 라캉이 남녀 사이에 성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

라, 이 공식을 통해 남성적인 위치와 여성적인 위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주체의 성을 결정하는 기표가 남근(phallus)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라캉은 주체의 성(sexuality)이 신체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표인 남근에 의해 결정된다고 간주한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기표는 남근이라는 기표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 남성을 상징화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응하는 기표가 없다 ... 남성적인 위치와 여성적인 위치는 상호적인 교환관계이거나 대칭적인 균등한 관계가 아니다”(Evans 181). 남성은 남근을 “소유하는”(to have) 방식을 취하는 반면, 여성은 남근으로 “존재하는”(to be)(Lacan, *Écrits: A Selection* 289) 방식을 취한다.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거세위협에 직면한 남성은 남근이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남근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립하고자 하고, 여성은 다른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됨으로써 남근으로 존재하려고 한다. 남성은 남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성으로부터 확인받으려 하고, 여성은 남성을 통해 욕망의 대상인 남근으로 존재하고자 한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욕망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 실제 관계에서 남성은 남근이 아닌 신체적 기관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여성은 욕망의 대상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은 성적 대상이 되고 남성의 성적 욕망은 여성 전체가 아닌 부분 대상들을 향하게 된다. 그리고 주체는 환상을 통해 “각각의 부분 대상을 욕망의 대상, 즉 대상 소타자로 받아들인다.”

... 그러므로 두 주체 사이의 성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란 단지 한 주체와 한 (부분) 대상 사이에 존재할 뿐이다. 남성에게는 대상 소타자가 비어있는 상대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이 (\$ $\diamond a$)라는 환상의 공식을 만들어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성에게 여성은 실제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환상의 대상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 There is therefore no such thing as a sexual relationship between two subjects, only between a subject and a (partial) object. For the man, the object a occupies the place of the missing partner, which produces

the matheme of fantasy ($\$ \diamond a$); in other words, the Woman does not exist for the man as a real subject, but only as a fantasy object, the cause of his desire.⁶⁾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주체 대 주체의 관계가 아니라 주체 대 대상 소타자의 관계가 된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바로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가 보여준 주체 대 대상 소타자의 관계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보여주는 특성은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가 보여주는 특성으로 설명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대상 소타자로서 여성은 남성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일 뿐이다. 남성에게 욕망의 목적은 대상 소타자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어긋남만 있을 뿐 완전한 결합이나 조화는 불가능하다.

어긋나기만 할 뿐 “결코 조화를 만들어 낼 수” 없었던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는 “성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성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뉴랜드와 엘런 사이에 문자 그대로 “성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엘런을 만난 뉴랜드는 “나한테 한번 와줘요”(AI 247)라고 요청하고 열쇠를 보내지만 뉴욕을 떠나기로 결정한 엘런은 “밀봉한 봉투에 넣어 그의 사무실로 열쇠를 돌려보낸다”(AI 259-60).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에서는 심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신체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결합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라캉의 욕망이론을 토대로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를 주체와 대상 소타자의 관계로 규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남녀관계의 본질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엘런을 대상 소타자로 규명하는 작업은 이미 위더로우와 살레츨을

6) Dylan Evans,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p. 181.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두 사람은 욕망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욕망을 억압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비판이자 “이데올로기 비판”(Witherow 2), 혹은 “사회의 규범들과 제도들인 대타자”(Salecl 205)에 대한 비판에 더 집중했다. 이 논문은 라캉의 정신분석 개념과 용어들에 입각해서 대상 소타자인 엘런의 특성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뉴랜드와 엘런의 사랑의 불가능성을 욕망의 특성 자체에서 생겨나는 불가능성으로 해석해 냈다. 또한 이 논문은 주체와 대상 소타자의 관계로 규정된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를 남녀관계의 문제와 연결해서 『순수의 시대』를 “성관계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읽어냈다. 이 논문의 의의는 『순수의 시대』를 주인공들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나 “옛 것과 새 것을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이야기”(Zihala 33)로, “사회 풍자”(Singley 243)로, 혹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Witherow 2)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 외에도 『순수의 시대』를 남녀관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 할 것이다.

뉴랜드와 엘런의 사랑의 불가능성을 욕망의 불가능성으로 읽어내는 방식은 사회적 규범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욕망 자체의 특성을 살펴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뉴랜드와 엘런의 관계를 뉴랜드의 관점에서 기술함으로써 또 다른 욕망의 주체인 엘런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해들리가 지적한 것처럼 『순수의 시대』에서 엘런의 이야기는 “이야기되지 않은 상태”(267)로 남아 있다. 두 사람의 사랑을 가부장제적인 남성 중심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남자 주인공 뉴랜드의 관점이 아니라, 1870년대의 뉴욕 상류사회에서 타자성을 구현하다가 추방당하는 엘런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숙재. 「『순수의 시대』에 나타난 순수 이데올로기의 메커니즘」. 『현대영미소설』 13(3), 2006.
- Clément, Catherine. *The Lives and Legends of Jacques Lacan*. Trans. Arthur Goldhammer. New York: Columbia UP, 1983.
- Eide, Marian & Vicki Mahaffey. “The Small Light in ‘A Little Cloud.’” *Collaborative Dubliners: Joyce in Dialogue*. Ed. Vicki Mahaffey. Syracuse: Syracuse UP, 2012.
- Evans, Dylan.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 Freud, Sigmund. “On the universal tendency to debasement in the sphere of love.” *Standard Edition Volume XI*. Trans.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 1978.
- Gallop, Jane. *Reading Lacan*. New York: Cornell UP, 1985.
- Hadley, Kathy Miller. “Ironic Structure and Untold Stories in *The Age of Innocence*.” *Studies in the Novel* 23(2), 1991.
- Homer, Sean. *Jacques Lacan*. New York: Routledge, 2005.
- Lacan, Jacques. “Desire and the Interpretation of Desire in *Hamlet*.” Trans. James Hulbert. *Yale French Studies* 55-66, 1977.
- _____.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 London: Norton, 1973.
- _____. *Écrits*. Paris: Editions du Seuil, 1966.
- _____. *É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London: Tavistock, 1977.
- _____. *Le Séminaire. Livre VII.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1959-60*.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Denis Porter. London: Tavistock/Routledge, 1992.
- _____. *Le Séminaire. Livre VIII. Le transfert, 1960-61*. Ed. Jacques-Alain Miller. Paris: Seuil, 1991.

- _____. *Le Séminaire. Livre XVII. L'envers de la psychanalyse, 1969-70*. Ed. Jacques-Alain Miller. Paris: Seuil, 1991.
- Pöder, Elfriede. "Concepts and Visions of 'The Other': The Place of 'Woman' in *The Age of Innocence*, Melanctha, and Nightwood." *Women in Search of Literary Space*. Eds. Gudrun Grabber and Maureen Vevine. Tübingen: Gunter Nurr Verlag, 1992.
- Salecl, Renata. "I Can't Love You Unless I Give You Up." *gaze and voice as love objects*. Eds. Renata Salecl and Slavoj Žižek. Durham: Duke UP, 1996.
- Singley, Carol J. *Edith Wharton: Matters of Mind and Spirit*. New York: Cambridge UP, 1998.
- Wharton, Edith. *The Age of Innocence*.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Witherow, Jean. "A Dialectic of Deception: Edith Wharton's *The Age of Innocence*." *Mosaic: A Journal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Literature; Winnipeg* 36.3 (2003).
- <http://search.proquest.com.ssl.openlink.khu.ac.kr:8080/docview/205371401?q-origsite=summon> (검색일: 2018.01.10.)
- Zihala, Maryann. *Edith Wharton's Old New York Society*.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2.
- Žižek, Slavoj. "Afterword: With Defender Like These, Who Needs Attackers." *The Truth of Žižek*. Eds. Paul Bowman, Paul & Richard Stamp.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07.
- _____. *Looking Awry: An Introduction to Jacques Lacan through Popular Culture*. Cambridge, MA: MIT P, 1993.
- _____. "Melancholy and the Act." *Critical Inquiry* 26(4), 2000.

❖ ABSTRACT

Ellen Olenska as the *objet petit 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in Edith
Wharton's *The Age of Innocence*

Lee, Mi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using Jacques Lacan's theory of desire, how Ellen Olenska functions as the *objet petit a* in her relationship with Newland Archer and to connect the impossibility of Newland and Ellen's love with the impossibility of desire, in Edith Wharton's *The Age of Innocence*. In New York society in the 1870s, the unpleasant truth was avoided, personal opinions were excluded, no room for imagination existed, and other-ness was expelled. In that society, Newland realized that true love and true emotions were lacking in his life. For Newland, Ellen was the gap in New York society and the object that could fill that gap. Ellen functioned as the *objet petit a*. But the romance between Newland and Ellen was forbidden in New York society, where everything was dominated by strict social codes, and especially because Newland was engaged to Ellen's cousin, May Welland. Ellen became inaccessible to Newland and this set Newland's desire for Ellen in motion. He idealized Ellen as the *objet petit a*, based on the fantasy that she would fill the void in his life. However, at every critical moment, Newland delayed unification with Ellen by resorting to social codes. His actions betrayed that the goal of his desire was not the fulfillment, but the reproduction of desire, with its circular movement. His decision not to see Ellen in Paris again at the end of the novel can be interpreted as Newland's effort to maintain Ellen as the inaccessible object, *objet petit a*, forever. It is this impossibility of desire that the romance of Newland and Ellen is predicated upon.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and this impossibility

of desir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and to interpret *The Age of Innocence* as a story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x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wland and Ellen shows that there is no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the sexes and that woman exists only as a fantasy object, *objet petit a* for man.

Key Words : Jacques Lacan, *objet petit a*, *The Age of Innocence*, Newland Archer, Ellen Olenska, sexual relationship

■ 논문접수일 : 2018. 11. 10

■ 심사완료일 : 2018. 11. 30

■ 게재확정일 : 2018. 12. 12